

#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고영주, 김남석\*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Decision Level

Yeong-Ju Ko, Namsuk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3,4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a=.54, p<.001$ ), 진로결정수준( $\beta=.23, p=.009$ )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2.49, p=.006$ ).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반영한 전략적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data collected from 108 nursing students in 3rd and 4th grade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beta= .54, p<.001$ ) and career decision level ( $\beta =.23, p=.009$ ).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were found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acy and career readiness behavior ( $Z=2.49, p=.006$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effe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c career guidance and program that reflects this.

Key Words : Nursing, University stud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Namsuk Kim(kns2015@chu.ac.kr)

Received February 5,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March 31,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2000년대 이후 대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타 학과로 전과 및 편입 등 전공 변경과 자퇴, 휴학 등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1]. 이는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와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하여 학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2].

진로란 개인이 삶에서 가지게 되는 일과 관련된 체험을 통한 탐색 과정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3]. 특히, 대학생의 경우는 개인의 적성과 잠재적 재능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취업률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하거나[5], 부모나 주변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6]. 이러한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 과정이 부족하게 될 수 있으며 취업 후 자신이 생각했던 간호사라는 직업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7].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은 입학 후 임상 실습을 경험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적성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한다[8]. 또한, 전공 및 실습 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맞게 계획하여 행동한다[9]. 이와 반대로 전공 및 실습 만족도가 낮으면 진로준비 과정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탐색 및 준비가 필요하다[10].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목표를 위해 직업탐색, 정보수집 등과 같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11]. 즉,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통해 진로준비과정에서 수행하는 행동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11].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를 위해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13].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4].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선택의 과정에 대한 확신을 말하며[15,16], 학생의 요구, 선호도, 학과에 대한 관심이 일치할 때 학업에 대한 지속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7].

이와 같은 진로준비행동은 충동적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진로탐색을 통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진로선택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시도되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 사이를 매개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수준이 작용하는 매개 효과에 대해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할 수 있는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지역 C대학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따른 1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Cohen[18]에 따라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요인 7개로 산정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03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설문지 125부를 배부

하였고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108부로 대상자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 (1996)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13]를 Kim과 Kim[11]이 수정·보완한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2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1이었다.

### 2.3.2 진로결정수준

Osipow 등(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16]을 Ko (1992)가 수정·번안한 18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15].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확실성을 나타내는 2문항과 미결정을 나타내는 16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결정수준을 나타내는 16개의 문항을 역 문항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o[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6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7이었다.

### 2.3.3 진로준비행동

Choi와 Kim (2012)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도구를 사용하였다[19]. 해당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

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과 Kim[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1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이었다.

##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검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정하였으며,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이 제시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검정한 후[20],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76명(70.4%), 남학생이 32명(29.6%)이었고 연령은 평균 23.59세이었다. 학년은 3학년 56명(51.9%), 4학년 52명(48.1%)이었고 입학 동기는 '자발적으로'가 45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1명(38.0%), '불만족'은 67명(62.0%)이었으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52명(4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8)

Variable	Categories	n(%)	CDMSE		CDL		CPB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76(70.4)	3.66±(.52)	-1.14	2.83±(.54)	-1.87	3.34±(.53)	-.54
	Male	32(29.6)	3.53±(.53)	(.257)	2.61±(.56)	(.064)	3.28±(.53)	(.592)
Age		23.59 ± 2.48						
Grade	3rd	56(51.9)	3.53±(.52)	-.89	2.66±(.60)	-0.22	3.22±(.47)	-1.95
	4th	52(48.1)	3.62±(.53)	(.374)	2.69±(.53)	(.830)	3.39±(.49)	(.054)
Motivation for nursing	High employment	45(39.8)	3.42±(.54)		2.58±(.55)		3.17±(.44)	
	Voluntary	43(41.7)	3.78±(.47)	4.50	2.89±(.50)	4.49	3.51±(.42)	6.67
	Recommendation	14(13.0)	3.40±(.34)	(.005)	2.38±(.54)	(.005)	3.17±(.28)	(.000)
Satisfaction of practice	Service	6(5.5)	3.50±(.72)		2.50±(.67)		2.92±(.72)	
	Satisfaction	41(38.0)	3.74±(.52)	2.67	2.82±(.54)	2.09	3.42±(.42)	2.15
	Non-satisfaction	67(62.0)	3.47±(.51)	(.009)	2.59±(.56)	(.039)	3.23±(.48)	(.034)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52(48.1)	3.81±(.49)	4.97	2.91±(.51)	4.62	3.44±(.44)	3.27
	Non-satisfaction	56(51.9)	3.35±(.46)	(.000)	2.46±(.52)	(.000)	3.16±(.45)	(.001)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L: Career Decision Level;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3.2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정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총 평점은 5점 만점 중 3.57점(±.53)이며, 진로결정수준은 4점 만점 중 2.67점(±.56)이었고, 진로준비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30점(±.47)이었다. (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ubject (N=108)

Variable	Category	Subcategories	Mean±SD
CDMSE	Total		3.57±.53
		Information gathering	3.47±.76
		Goal setting	3.42±.62
		Career planning	3.42±.62
		Problem-solving	3.54±.60
		Self evaluation	3.74±.63
CDL	1.33	3.83	2.67±.56
CPB	1.72	4.20	3.30±.47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F=4.50,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실습만족도( $t=2.57, p=.009$ ), 전공만족도( $t=4.97,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결정수준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F=4.49,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실습만족도( $t=2.09, p=.039$ ), 전공만족도( $t=4.62,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F=6.67,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실습만족도( $t=2.15, p=.034$ ), 전공만족도( $t=3.27,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4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

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67, p<.001$ )과 진로결정수준( $r=.53, p<.001$ )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r=.56, p<.001$ )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참고).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08)

Variable	CDMSE	CDL	CPB
	r(p)		
CDMSE	1		
CDL	.56(<.001)	1	
CPB	.67(<.001)	.53(<.001)	1

### 3.5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회귀방정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방정식은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6, p<.001$ ). 두 번째 방정식은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7, p<.001$ ). 세 번째 방정식은 매개효과 검증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 $\beta=.54, p<.001$ ),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 $\beta=.23, p=.009$ ).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부분매개 변수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설명력은 48.0%로 나타났다(Table 4).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한 결과 Z값이 2.49( $p=.006$ )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즉,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N=108)

Step	Variable	B	SE	$\beta$	t	p	R <sup>2</sup>	Adj. R <sup>2</sup>	F	p
Step 1.	CDMSE→CDL	.59	.086	.56	6.86	<.001	.31	.30	47.112	<.001
Step 2.	CDMSE→CBP	.59	.064	.67	9.22	<.001	.45	.44	85.056	<.001
Step 3.	CDMSE, CDL →CPB						.48	.47	48.530	<.001
	CDMSE→CBP	4.82	.075	.54	6.41	<.001				
	CDL→CBP	.187	.070	.23	2.67	.009				

Table 5.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N=108)

Path	a(SEa)	b(SEb)	Z(p)
CDMSE → CDL → CPB	.59(.086)	.19(.070)	2.49(.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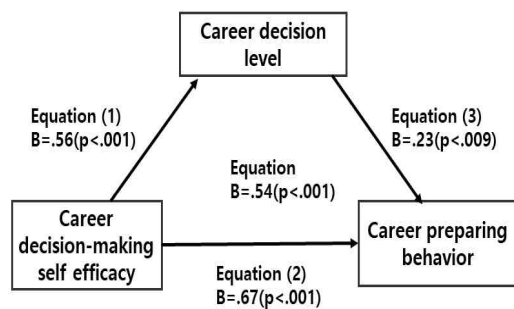


Fig. 1.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efficacy,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진로지도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57점이었다.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Ko[21]의 3.52점과 유사하였으며,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Hyun과Kim [22] 3.46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목표설정과 진로계획이 각각 3.42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자기평가 3.74점, 가장 낮은 영역은Lee와 Kim[5]의 연구에서는 자기평가가 가장 높았고, 문제 해결영역에서 가장 낮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와 Kim[5]의 연구대상자와는 달리 1,2학년이 상대적으로 많아 문제해결에 대한 어려움으로 문제해결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과 입학 시 진로가 정

해져 있는 점과 적성에 대한 고려 부족, 취업률 우선시하는 경향에 따른 진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은 입학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6]. 따라서 학생 스스로 진로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진로지도프로그램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은 4점 만점에 2.68점으로 나타났으며, Moon과 Kim (2017)의 연구에서는 2.80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다소 높았다[23]. 이와 반대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Moon과 Cho[24]의 연구에서는 2.5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보다 낮았다.

진로결정수준은 전공 및 진로선택과정에 나타나는 확신으로[15,16] 진로관련정보 및 탐색에 대한 적극성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다[14]. 그중에서도 취업을 앞둔 학년에 대한 차이로 생각된다. 이는 진로상담 시 학생 개개인이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족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진로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26].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5점만점에 3.30점으로 항공서비스학과를 대상으로 한 Choi와 Cho[27]의 연구의 3.46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전공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우며,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한 Bae[28]의 연구에서는 2.97점으로 본 연구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Kim (2016)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에 대한 높은 만족도[14]와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9].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입학 시 간호학과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경우와 임상만족도,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변수 간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진로결정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nt 등(1994)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직접 주며[30], 구체적인 진로결정과 진로행동의 기본적인 바탕이라 하였다[31]. Koo 등(2017)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32]. 또한, Choi와 Cho (2019)의 연구에서는 희망하는 취업 분야의 현직자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27]. 이러한 결과는 간호 분야에 확대하여 간호대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한 현직자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진로에 대한 능력과 믿음이 높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이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결정 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전략적 진로 지도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지역 단일 대학에서 자료수집이 되었고, 취업이 확정된 4학년 학생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제한이 따른다. 향후 학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에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E. Lim & Y. Y. Kwak. (2011). Female college students' leave of absence types and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2), 231-248.
- [2] S. M. Jang. (2013). The beginning and formation of Korean progress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37, 1-29.
- [3] S. J. Kim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ident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3), 1425-1441.  
<http://dx.doi.org/10.15703/kjc.13.3.201206.1425>
- [4] M. J. Kim & B. W. Kim.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 13-25.
- [5]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6] H. T. Shin & H. J. An. (2014).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3), 165-175.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3.165>
- [7] K. A. Lee & J. H. Kim. (2015).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42-49.  
<https://doi.org/10.16952/pns.2015.12.1.42>
- [8] L. McKenna, L. McCall & N. Wray. (2010). Clinical placements and nursing students' career planning: A qualitative explo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6(2), 176-182.  
<https://doi.org/10.1111/j.1440-172X.2010.01827.x>
- [9] M. J. Chae & H. J. Jung. (2016).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3), 213-222.  
<http://dx.doi.org/10.12811/kshsm.2016.10.3.21>

- [10] A. Rudman & J. P. Gustavsson. (2012).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9(8), 988–1001.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03.010.
- [11]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12] R. W. Lent, S. T. Brown & G. Hackett.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http://dx.doi.org/10.1037/0022-0167.47.1.36
- [13]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14] S. O. Ki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2(2), 210–219.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210
- [15] H. J. Ko. (199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6] S. H. Osipow, C. G. Carney & A. Barak.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17] K. Norwalk, J. M. Norvilitis & M. G. MacLean. (2008). ADHD symptomat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3(3), 251–258.  
https://doi.org/10.1177/1087054708320441
- [18] J. Cohen.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9] Y. K. Choi,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5), 2085–2097.
- [20] R. M. Baro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1] N. Kim & Y. J. Ko. (2020).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211–218.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1
- [22] H. S. Hyun & Y. Kim. (2018).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1), 29–3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29
- [23] M. K. Moon & S.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on and Statistics*, 42(2), 162–169.  
https://doi.org/10.21032/jhis.2017.42.2.162
- [24] Y. A. Son, S. J. Sin & E. Y. Son. (2014). Valuable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09–125.
- [25] K. J. Moon & E. J. Cho. (2017). Exploring correlat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2(2), 127–135.  
https://doi.org/10.21032/jhis.2017.42.2.127
- [26] H. Y. Koo, O. K. Park & K. W. Jo. (2017). Experience of career decision of Korea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168–178.  
https://doi.org/10.4094/chnr.2017.23.2.168
- [27] J. E. Choi & Y. Cho. (2019). Influences of worker's job mentoring progra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 581–601.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581
- [28] K. Bae. (2019). Relationship of personality development level, self-r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cas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515–525.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7.046
- [29] T. J. Jang & M. Moon. (2014).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 344–352.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30]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http://dx.doi.org/10.1006/jvbe.1994.1027
- [31] J. Lee & W. Choi. (2010).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variables that affect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ac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2), 101–121.
- [32] H. Y. Koo, O. K. Park & S. Y. Jung. (2017). Pat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nursing student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1), 10-18.  
<https://doi.org/10.4094/chnr.2017.23.1.10>

고 영 주(Yeong-Ju Ko)

[정회원]



- 2015년 9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도구개발, 간호교육
- E-Mail : yjko@chu.ac.k

김 남 석(Namsuk Kim)

[정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취약계층, 간호교육
- E-Mail : kns2015@chu.ac.kr